

14. '94年度 建設業者 都給限度額 決定

資料提供：建設部

건설부는 '94. 8. 25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1,614개사)에 대한 '94년도 도급한도액을 결정·발표하였다.

〈도급한도액 순위 50위까지 업체 : 별표 1〉

1. 도급한도액의 의의

-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공사의 최고 한도액으로서, 건설업자로서 하여금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 도급한도액은 각 업체가 2년간 시공한 공사실적의 년평균액·재무구조·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작년도보다 달라진 것은 도급한도액 최대규모를 기준금(자본금+준비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에 따라 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증자에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 이번에 결정된 도급한도액은 '94. 8. 25부터 '95. 6. 30까지 적용하게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2. '94 도급한도액 분석

○ 도급한도액 규모의 신장(토목건축공사업)

도 급 한 도 액	면 허 수 (토 건)		
	'94	'93	증 감
5,000억원 이상	16	12	4
2,000억원 ~ 5,000억원 미만	31	25	6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47	39	8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58	38	20
200억원 ~ 500억원 미만	227	152	75
100억원 ~ 200억원 미만	291	261	30
100억원 미만	307	476	△169

※100억미만의 307개사는 대부분 '92신규업체임

○ 건설공사실적 신장

'94도급한도액은 '92 및 '93년도 2년간의 공사실적을 기본으로 산정되었으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면허를 받은 1,614개회사가 '93년중 국내·외에서 시공한 실적은 43조 3404억원으로 '92년의 39조 2,299억원보다 10.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공사실적은 '92년보다 10.02%가 증가된 40조 5,986억원이며,
 - 해외공사실적은 '92년보다 17.7% 증가된 2조 7,418억원(3,392백만 \$)임

3. 경영분석

'93년 건설업 매출액이 신장된 반면, 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유동비율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은 '92년 대비 10.47% 증가('93 : 43조 3,400억/'92 : 39조 2,299억) 되었으나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은 전년도(2.88%)보다 낮아진 2.68%임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은 281.13%로써 전년도(282.92%)보다 호전되었음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전년도(199.07%)보다 낮아진 183.05%이며,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역시 전년도(1.66회)보다 낮아진 1.31회임

4. 공종별 시공실적 기록유지

○ 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건설업체가 갖춘 시공능력의 전문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2~'9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도급한도액과 함께 각 업체의 공사실적을 토목공사 8개, 건축공사 6개 등 주요 공종별로 집계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

— 토목공사업 : 도로 및 교량, 댐 및 발전소, 항만,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치산치수 및 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 분야

—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기타 건축공사분야

※ 도급한도액 상위 50위내 업체 순위변동

○ 50위 밖에도 진입한 업체 : 8개사

삼익건설(59위→34위), 거양개발(94위→37위), 남광토건(56위→38위)

한라건설(58위→41위), 진로건설(51위→42위), 한보철강(54위→46위)

공영토건(69위→48위), 삼성엔지니어링(61위→50위)

○ 50위 밖으로 밀려난 업체 : 8개사

금강종합건설(47위→54위), 고려개발(40위→55위), (주)삼익(46위→56위)

계룡건설산업(42위→58위), 임광토건(50위→59위), 대아건설(45위→60위)

고려산업개발(43위→63위), (주)보성(44위→74위)

'94도급한도액 순위표(1~50위)

(단위 : 억원)

'94순위	회 사 명	대 표 자	'94 한 도 액	'93순위	'93 한 도 액
1	현대건설(주)	이내훈	20,442	1	18,168
2	(주)대우	장영수	17,523	2	13,092
3	동아건설산업(주)	유영철	15,024	4	11,087
4	삼성건설(주)	최 훈	12,456	3	12,571
5	대림산업(주)	이재준	10,211	5	10,433
6	현대산업개발(주)	심현영	9,258	7	7,231
7	쌍용건설(주)	김석준	8,209	9	5,702
8	럭키개발(주)	구자성	7,347	8	7,050
9	한국중공업(주)	이수강	7,207	6	8,251
10	롯데건설(주)	이상순	6,984	16	4,294
11	선경건설(주)	정순착	6,148	12	5,209
12	삼성중공업(주)	경주현	5,769	22	3,362
13	(주)금호건설	박정구	5,520	11	5,327
14	(주)우성건설	최승진	5,456	13	4,783
15	동부건설(주)	홍관의	5,455	14	4,466
16	두산건설(주)	정한균	5,368	15	4,378
17	한진건설(주)	안 용	4,861	20	3,557
18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4,649	23	3,276
19	(주)한양	김한중	4,557	17	3,663
20	한신공영(주)	박명남	4,490	10	5,599
21	삼부토건(주)	조남욱	3,915	28	2,844
22	벽산건설(주)	김희근	3,911	18	3,566
23	경남기업(주)	김학용	3,856	29	2,783
24	(주)태영	변 탁	3,840	27	2,847
25	(주)건영	엄종일	3,787	19	3,560
26	(주)청구	장수홍	3,757	25	2,998

'94순위	회 사 명	대 표 자	'94 한 도 액	'93순위	'93 한 도 액
27	극동건설(주)	김명근	3,578	21	3,389
28	(주)동신주택	이균보	3,542	32	2,488
29	삼환기업(주)	최용권	3,391	24	3,058
30	코오롱건설(주)	석학진	3,224	26	2,874
31	풍림산업(주)	이필웅	3,200	31	2,496
32	(주)우방	이순목	3,113	38	1,824
33	유원건설(주)	최영준	2,816	33	2,354
34	삼익건설(주)	이창수	2,791	59	1,305
35	신화건설(주)	이남주	2,771	30	2,578
36	(주)신성	신유호	2,376	36	2,078
37	거양개발(주)	이정부	2,316	94	729
38	남광토건(주)	이영선	2,281	56	1,346
39	성지건설(주)	김홍식	2,268	39	1,722
40	(주)기산	김정권	2,125	34	2,257
41	한라건설(주)	권기태	2,087	58	1,305
42	진로건설(주)	이철규	2,083	51	1,436
43	벽산개발(주)	김희근	2,080	35	2,107
44	(주)삼호	이주승	2,061	37	2,029
45	신동아건설(주)	권중두	2,059	49	1,500
46	한보철강공업(주)	권대욱	2,056	54	1,381
47	성원건설(주)	전윤수	2,020	48	1,509
48	공영토건(주)	최원석	1,971	69	1,150
49	(주)서광건설산업	박상근	1,956	41	1,617
50	삼성엔지니어링(주)	안덕기	1,939	61	1,278